

# 브라질에서 대규모 방사능오염사고 발생

편집부

최근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한 보고서는 대규모 방사능 오염사고가 지난 87년 브라질의 고이아스주 구이아나시에서 발생했다고 뒤늦게 밝혔다.

사고의 발단은 지난 85년 12월 구이아나시에 위치한 한 방사선진료소가 자리를 옮기면서 진료설비 일부를 방치한채 떠나면서부터이다.

옮긴이후 이 진료소건물은 부분 폐쇄됐으나 건물내부에는 강력한 방사선을 내는 세슘 137이라는 물질이 납과 스테인레스강으로 둘러싸인 회전어셈블리속에 내장돼 있었다.

2년후인 87년 9월 10일경 2명의 구이아나주민이 이 진료소 건물에 들어가 진료설비내의 세슘 137이 든 회전어셈블리를 떼어내 집으로 가져갔다.

이들후 이들중 한명은 인근 병원으로 찾아가 손발이 붓고 구토·설사 등을 호소했으나 식중독이라는 진단을 받고 그대로 귀가했다. 다른 한명은 자기 정원에서 이 어셈블리의 분해에 성공, 그 조각들은 이웃의 고물상에 팔았다.

고물상에 둔 금속조각들이 어둠속에서도 쌀알같은 크기로 파란빛을 내는 것을 보기 위해 이웃사람들이 몰려왔고 이들중 일부는 빛을 내는 조각들을 자신의 피부에 문지르기도 했다.

고물상 인부들은 이 어셈블리의 납을 떼어내는 작업을 했으며 이 납은 다른 곳으로 옮겨지면서 여기에 붙은 방사성 물질은 도시 전체로 확산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신체적 이상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갈수록 늘자 이들 질환의 원인규명에 전도시의 관심이 집중됐다. 환자 대부분은 열대병 전문병원에 보내졌으며 이들을 검진, 방사선 오염

을 발견한 한 의사의 지적에 따라 의료 물리학자들이 의심가는 물질을 조사한 끝에 집단방사능오염임을 밝혀냈다.



**지난 87년 브라질의 구이아나시에서 대규모 방사능 오염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의 발단은 방사선 취급자의 무책임과 일반인들의 방사능 물질에 대한 무지로 인해 일어난 것으로 방사능 물질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이에 따라 고이아스주는 전역에 핵비상사태를 선포, 대부분의 사람들을 울림픽경기장에 격리수용, 오염도를 검진했으며 당초 오염의 진원지 주변의 주민들을 완전히 소개시켰다.

11만여명의 주민들에 대한 검사결과 2백 49명이 방사능오염으로 판명되었고 4명은 사망하였으며 사고이후 구이아나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판매량은 4분의 1로 경감되었다.

이번 사고는 방사선원 취급자의 무책임과 일반인들의 방사능물질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준 것으로 관련자 모두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 \*